원수와의 동거가 불편하지 않은 이유

(사무엘상 29:1~11)

6. 아기스가 다윗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네가 정직하여 내게 온 날부터 오늘까지 네게 악이 있음을 보지 못하였으니 나와 함께 진중에 출입하는 것이 내 생각에는 좋으나 수령들이 너를 좋아하지 아니하니
7. 그러므로 이제 너는 평안히 돌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에게 거슬러 보이게 하지 말라 하니라
8.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내가 당신 앞에 오늘까지 있는 동안에 당신이 종에게서 무엇을 보셨기에 내가 가서 내 주 왕의 원수와 싸우지 못하게 하시나이까 하니
9. 아기스가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네가 내 목전에 하나님의 전령 같이 선한 것을 내가 아나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은 말하기를 그가 우리와 함께 전장에 올라가지 못하리라 하니
10. 그런즉 너는 너와 함께 온 네 주의 신하들과 더불어 새벽에 일어나라 너희는 새벽에 일어나서 밝거든 곧 떠나라 하니라
11. 이에 다윗이 자기 사람들과 더불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떠나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돌아가고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르엘로 올라가니라

오늘 말씀 중심으로 <원수와의 동거가 불편하지 않은 이유>라는 제목의 하나님말씀 증거 합니다.

‘원수와의 동거가 불편하지 않는 이유’
오늘 본문의 내용과 관계해서 “편안한 만남이 좋다”라는 내용이 시와 같이 아름다운 제목의 책을 일게 되었습니다. 일부분만 읽어 봅니다.
“속에 무슨 생각을 할까 짐작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 / 말을 잘 하지 않아도 선한 눈웃음이 정이 가는 사람 / 문득 생각나 차 한 잔 하자고 전화하면 밥 먹을 시간까지 스스럼없이 내어주는 사람 / 장미처럼 화려하진 않아도 풀꽃처럼 들꽃처럼 성품이 온유한 사람 / 머리를 써서 상대를 차갑고 냉철하게 하는 사람보다 가슴을 써서 만나고 나면 가슴이 따뜻해지는 사람 / 마음이 힘든 날엔 떠올리기만 해도 그냥 마음이 편안하고 위로가 되는 사람 / 흐린 날에 고개 들어 하늘을 보면 왠지 햇살 같은 미소 한번 띄워줄 것 같은 사람 / 사는 게 바빠 자주

연락하지 못해도 서운해 하지 않고 오히려 뒤에서 말없이 기도해 주는 사람……”
이런 사람이 바로 편안하게 만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이 조건들이 16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이 글을 읽고 나서 이런 사람을 찾는다는 말인지 이런 사람이 되자는 것인지 글의 의도를 분명하게 알 수 없었습니다. 이런 사람을 찾고 있다면 이런 사람을 찾아다니는 그 사람만큼 불편한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편안한 만남을 위해 16가지의 조건을 들이대며 만난다면 불편해서 만날 수가 없습니다. 이런 16가지의 조건을 갖춘 사람이 되자는 의도로 쓴 글이라도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이 16가지 조건을 구비한 사람일지라도 누구에게나 그렇게 대할 수는 없습니다. 내게서 무엇인가를 훔쳐가려는 의도가 보일 때 편안하게 상대할 수는 없듯이 상황에 따라서 16가지 조건들이 유지될 수가 없습니다. 이 글은 아름답다는 느낌을 들게 하고 감상에 젖게 합니다만 실제 상황에서는 가능하진 않아 보입니다.
사람을 만날 때에 편안함을 느끼는 것이 내가 만나는 사람의 어떠함에 근거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한 편안한 만남은 불가능해집니다. 편안한 사람을 만나서 내 삶을 채우려면 지구 바깥으로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늘 편하게 여겼던 사람조차도 때에 따라서는 극히 불편할 수 있고, 계산 때문에 나에게 편하게 맞추어 주며 접근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만남의 실제 상황에서는 이런 식으로라도 편안한 사람만을 만나는 것은 아닙니다. 원수 같은 사람, 어색한 사람,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 억울한 대우를 하는 사람 등등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만남에서 굳이 편한 사람의 조건을 들먹이지 않고 모든 사람과 어쩔 수 없이 만나게 되면서도 내가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길은 없는 것일까요? 이러한 편안한 사람을 찾는 것은 불가능하고 16가지 조건을 갖추는 것도 불가능하지만 원수로부터 가장 편한 가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스펙트럼에 걸친 모든 사람들과 만나며 항상 평강을 유지하는 길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면 시누이, 시어머니, 악덕 사장님, 직장 상사, 사이가 벌어진 부부관계 등 다양한 관계가 실제로 대면하기 불편할 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 삶의 모든 불행은 인간관계가 어긋나고 깨어지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오늘 본문은 원수와 동거를 해도 불편함이 없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용은 오늘 본문에서 다윗의 난감한 처지가 묘사되고 있습니다.
앞장에서 사울은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두고 두려운 마음에 하나님의 뜻과 도움을 구하려고 했지만 응답받지 못하자 신접한 여인을 찾아서 사무엘의 영을 만나려 시도했습니다. 그리고 블레셋 왕 아기스는 망명하여 1년 넘게 살고 있었던 다윗에게 추종자들과 함께 전쟁에 참전하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다윗은 이 상황을 거부했다가는 당장 아기스 왕에게 잡혀 죽을 것이고, 명령을 듣자니 동족을 죽여야 하는 상황으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난감한 처지에 처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인과응보라고 합니다. 우리가 앞서 살펴본 블레셋으로

망명한 것 자체가 불신앙적 행동이었기 때문에 그 결과로서 이러한 난감한 상황이 주어졌다는 것인데 이러한 해석은 다윗으로서는 억울합니다. 사울 왕이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름부음 받은 자였기 때문에 다윗으로서는 그 사실을 번복하거나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사울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지만 죽이려고 하는 사울 왕을 하나님께서 손대지 않으시기 때문에 대적할 수가 없었고 밀려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신을 따르는 3,000명을 데리고 사울의 통치권 아래에서는 먹고 살 수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몰아내신 것인데 더 이상 억울한 누명을 씌우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이렇듯 다윗의 마음속에는 삶의 모든 순간에서 언제나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으로 붙박이 믿음이었습니다. 이제 아기스 왕의 명대로 출전을 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는데 다행스럽게도 하나님의 섭리 아래에서 실제상황이 극적으로 바뀌게 됩니다. 블레셋의 방백들이 다윗이 전쟁에 나갔을 경우에 자신들을 배반할 것을 염려하여 다윗의 참전을 극구 반대했던 것입니다. 아기스 왕이 방백들의 요청을 뿌리칠 수가 없어서 다윗을 돌려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전쟁에 참여하지 말라'는 아기스 왕의 명령을 받은 다윗의 반응이 아주 불편하고 가식적으로 보입니다. 8절에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내가 당신 앞에 오늘까지 있는 동안에 당신이 종에게서 무엇을 보셨기에 내가 가서 내 주 왕의 원수와 싸우지 못하게 하시나이까'라고 합니다. 여기서 '내 주'는 현 통치자인 '아기스'를 뜻하고 아기스의 원수는 사울인데 '왜 사울과 싸우지 못하게 하시나이까'라고 하는데 무엇 때문에 이처럼 과장되고 거짓된 과잉반응을 보이는 것일까요? 아기스 왕의 통치하에 머물고 있는 처지를 감안하면 그냥 못이기는 척하고 참전 무산이 좀 불쾌하다는 표정만 지었어도 충분했을 것인데, 왜 전쟁에 나가지 못해 너무 억울하고 아쉽다는 과잉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일까요?
전쟁에 불참하게 되자 마음 놓고 거짓되고 과장된 허세를 부리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러한 모습을 보이는 다윗의 속마음에는 깊은 신앙심이 근거되어 있었습니다.
앞장 28:1절에 "그때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군대를 모집한지라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밝히 알라 너와 네 사람들이 나와 함께 나가서 군대에 참가할 것이니라"라는 말에 대해서 2절에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그러면 당신의 종이 행할 바를 아시리이다"라고 대답합니다. '당신이 행할 바를 아시리이다'라는 말은 '내가 행하여야 할 것을 당신이 아시니 명령만 하십시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을 공동번역 성경에서는 '분부만 내리시면 그대로 하겠습니다.'라고 번역했습니다.
그렇다면 동족을 죽여야 하는 전쟁에 참여하라는 왕의 명령 앞에서 이렇게 말하는 다윗의 생각은 도대체 무엇이었을까요? 정말로 이스라엘을 죽이라는 명령에 따를 작정이었을까요? 오히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허세처럼 보이는 과잉된 반응의 이유이기도 한데, 이것은 다윗의 마음속에는 사울 왕과의 관계에서도 그랬듯이 이방 왕 아기스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주권이

우선시되고 있었습니다. 즉 아기스 왕의 지시도 자신에 대해 갖고 계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넘어설 수 없는 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분명히 블레셋의 아기스 왕의 통치 아래에 있었지만 다윗의 마음에는 아기스가 어떠한 생각이나 명령을 할지라도 그것이 자신을 향해 가지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넘어가거나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이길 수 없다는 자신감이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아기스를 향해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아기스 왕 위에 계신 하나님을 따르려고 했던 것입니다. 전쟁에 참여하라는 아기스 왕의 말조차도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길 수 없음을 믿고 싸워야 된다면 싸우겠다고 받아들인 것인데, 이스라엘과 싸우게 되더라도 그 상황에서는 또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서 행동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원수와의 동거가 불편하지 않은 이유이고 비결입니다.

예를 들어 내가 다니는 회사의 사장이 악덕 사장인데 그와의 동거가 전혀 불편하지 않을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일까요? 내 앞에서 소리 지르고 인상 쓰고 난리치는 악덕 사장보다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먼저 실감되면 그 악덕 사장조차도 귀엽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악을 쓰며 비난하더라도 오히려 그 말에 대해서 '맞습니다. 제가 사장님 입장이라도 저 같은 놈은 아주 혼이 나야 합니다.'라고 사장 편을 들어줄 수 있는 마음가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속으로 '그래 내가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참는다.'라고 한다면 불행합니다.
하나님이 먼저 실감된다면 악덕 사장이 아무리 나를 다그쳐도,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 가지신 계획과 뜻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고, 나를 향한 악덕사장의 모든 짓이 귀여울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먼저 실감한다면 내 인생은 악덕사장의 영향권이 아닌 하나님의 영향권 아래에 있음을 알고, 머리카락 한 올 만큼도 내게 영향을 미칠 수 없음을 확신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먼저 실감하여 하나님이 마음에 가득히 느껴지면 원수든 시어머니든 시누이든 라이벌이든 직장 상사이든 그 누구도 상관이 없게 됩니다. 70억 인구가 힘을 합쳐도 나를 향해 가지신 하나님의 뜻을 이길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핵무기가 터져서 내 몸이 죽을지라도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은 이길 수가 없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도 우선적으로 하나님을 실감할 수 있다면 나 한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고, 미국이 덤비더라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과 뜻이 이루어지기위해서 누구도 하나님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순교는 왜 일어나는 것일까요? 순교는 내 몸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여 내 몸을 돌로 치는 사람들보다도 하나님을 먼저 실감하는 것입니다. 스데반은 순교 현장에서 자기를 돌로 치는 자들을 위해 기도했는데, 하나님을 실감해서 죽어도 손해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이것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 세상 무엇보다 실감할 때에 나타나는 신비입니

다. 우리는 이 신비한 힘에 근거해서 이 땅에서 발생하는 어떠한 이유로도 깨지지 않는 절대 평강을 누릴 수 있는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이 세상에서 만나는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먼저 실감할 수 있을까요? 그 사람에 대해서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죽는 것입니다. 내가 만나야 될 사람이 있다면 먼저 기도하는 것입니다. 몸은 그 사람을 만나러 가겠지만 내 마음은 십자가에서 죽은 자임을 인정하는 기도를 통해서 주님의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동선을 따라 하나님께로 가게 되고, 성령님께서 내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실감하게 됩니다. 그렇게 될 때에 그 사람과의 만남에 대해서 가졌던 불안한 마음이 사라지고, 만남이 어떻게 진행되든 상관이 없고 마음에는 평강이 자리 잡습니다. 이 사람이 나에게 악한 생각을 하든지 말든지 아무런 상관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읽었던 '편안한 만남이 좋다'라는 글에서처럼 상대방이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랄 필요가 없습니다. 그 사람이 나를 죽이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그 사람보다 먼저 하나님께서 나에 대해 가지신 계획을 이길 수는 없는데 이것이 마음에서 확신이 되면 웃음이 나옵니다.
다윗은 이러한 마음의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아기스 왕의 말에 대해 허세쟁이와 같은 반응을 보였던 것입니다. 아기스 왕이 자신이 실감하는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이겨서 바꿀 수가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명령하는 대로 마음 놓고 다 들어주겠다고 말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악덕 사장을 만났을 때에 다윗과 같이 행동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실감되지 않았을 때에는 오늘은 또 무슨 트집을 잡고 무슨 일을 시켜서 고난을 줄지 걱정했다면, 이제는 그것도 하나님의 계획으로 믿고 받아들이게 됩니다. 다만 그 사람을 만나기 전에 반드시 십자가에서 마음을 죽여서 주님 따라 마음이 하늘로 올라가 하나님을 먼저 실감해야 합니다. 악덕을 부리면 부릴수록 귀여워 보일 수 있고 그를 위해 기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어차피 만나야 이루어지는 이 삶의 모든 스펙트럼에서 변하지 않는 절대 평강을 누릴 수 있는 자들이 되기 위해 오늘도 주님의 십자가에서 모든 사람들에 대하여 미리 죽고, 그 사람들이 살아 있음보다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먼저 실감하고 나서 그들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